

# 정치의 신체화, 신체의 정치화\*

## —미 점령기 일본의 스포츠 담론과 민주화—

조정민\*\*

(e-mail : regina@pknu.ac.kr)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부활하는 두 국체(国体) |
| 2. '민주주의'의 기표, 스포츠 | 4. 결론            |

키워드 : 아미카占領期 (The U.S. Occupation of Japan), 天皇制(Japanese Emperor System), 民主化 (Democratization), 国民体育大会(The National Athletic Meet), 身体(Body), 스포츠(Sport)

##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패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총사령부(GHQ/SCAP)<sup>1)</sup>의 대일 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은 '비 군사화'와 '민주화'였다. 전자는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만들기 위함이었고, 후자는 군국주의를 파기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이념적 토대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 울트라 내셔널리즘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전시 하의 일본 상황을 고려할 때, 비 군사화와 민주화는 분명 당시의 일본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을 터였다.

패전 일본이 맞이해야 했던 이 같은 급격한 시류의 변화를 가와카미 데쓰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6535).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및 문화

1) 패전 일본은 1945년 9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28일까지 약 7년간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된다. 연합국의 일본 점령은 사실상 미국의 단독 점령이었고 간접 통치 방식이 취해졌다. 다만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정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다.

로(河上徹太郎)는 ‘배급된 자유’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는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진 가와카미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전후 개혁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었지만, 실은 일본의 민주화가 타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기도 했다.<sup>2)</sup>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위로부터 자행된 강제적인 개혁으로 인해 패전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와 ‘자유’를 구가하는 나라로 단숨에 탈바꿈하게 되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러했다. 천황제 국가 체제 하에서 언론, 결사, 사상, 학문 등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던 치안유지법의 폐지나, 이들 치안입법에 의하여 투옥되어 있던 정치범의 석방, 정치범 및 사상범의 규제를 담당하던 특별고등경찰의 폐지, 나아가 경찰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내무대신의 파면 등,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적 제반 조건을 만드는 작업은 모두 GHQ의 지령을 통해 이루어졌다.<sup>3)</sup> 그 밖에도 국가신도 폐지와 신앙의 자유, 전쟁 협력자의 공직 추방, 여성해방, 노동조합의 결성, 교육의 자유화, 경제 민주화 등이 GHQ에 의해 실현되었고, 전쟁 포기를 명기 한 일본국 헌법의 공포 역시 GHQ의 강력한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광범위에 걸친 점령 개혁이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GHQ의 강력한 지배력 때문으로, 그들은 패전 일본에 민주화를 공적 가치로 구현시키고자 하고 있었으면서도 점령의 수월성 혹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위반하는 이중성을 노출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살펴 볼 스포츠 담론과 실천에도 드러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패전 직후에 부활한 각종 스포츠는 전시 하에서 억압된 오락이나 신체 활동의 일부로서 재등장했다기보다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신체화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 그리고 천황을 다시 일본인의 몸에 기입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천황제 부활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를 점령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와 군국주의라는 모순된 이데올로기의 결합이 스포츠를 통해 이루어진 셈인데 이는 결국 패전 일본의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의 나약함과 빈약함을 증명하는 대목에 다름 아니다. 이하에

2) 조정민(2009) 『만들어진 점령서사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산지니, p.17.

3) 松本三之介(1974) 『近代日本の知的状況』、中央公論社、p.195.

서는 패전 일본에서 정비된 스포츠 체제와 미국식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신체의 정치화, 정치의 신체화를 통해 전후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논해 보고자 한다.

## 2. ‘민주주의’의 기표, 스포츠

개인의 질병과 위생, 건강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몸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국가와 국가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수용, 순종하는 개인의 신체 사이에는 이미 주종적인 권력 관계가 철저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개인의 신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국가 의지가 노골화된 것은 역시 전시 하였다. 소위 총력전 체제 하에서 개인의 몸은 국가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1938년에 후생성(厚生省)이 설치된 이후 그 이전까지 문부성(文部省)이 담당하고 있던 사회체육 관련 사항은 모두 후생성 체력국(体力局)이 관리하게 되었다. 체력국에서는 사회체육지도자 양성과 청소년의 체력 검사, 사회체육 운동 등을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1939년에 체력국은 국민체력심의회를 설치하여 ‘국민체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은 26세 미만의 남자, 20세 미만의 여자를 대상으로 각 개인에게 체력 수첩을 배포해 1회 내지는 2회 정도 체력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체력을 관리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개인에게 사회체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장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체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금지시켜 개인의 체력을 오로지 ‘천황의 적자(赤子)’로 규정해 ‘건병건민(健兵健民)’으로 양성해 전력(戰力)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sup>4)</sup>

개인의 신체를 전력으로 관리하는 전시 하의 시스템은 패전 후 GHQ의 개혁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GHQ는 “황국민의 수와 자질을 증강해야 할 필요가 점점 중요”해진 전시 하에서 “국민체육진흥사업을 강력하게 운영하고 황국민의 몸과 마음을 담게 만드는 것<sup>5)</sup>”을 목표로 1942년에 조직된 정부 외곽단체인 대일본체육회의 해산을 명령하고<sup>6)</sup>, 이를 감독하고 있던 후생성 건민국(健民局)도 폐지를

4) 内海和雄(1993) 『戦後スポーツ体制の確立』、不昧堂出版、p.22-23.

5) 日本体育協会(1963) 『日本体育協会五十年史』、日本体育協会、p.62.

명령하였다. 그로 인해 1946년 1월 문부성 체육국(体育局)에 사회체육을 관장하는 진흥과가 설치되었고 이 조직을 통해 전후 일본의 사회체육 즉 스포츠 행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후 일본의 사회체육 행정에 대한 GHQ의 입장이다. GHQ의 요청으로 1946년 3월에 일본을 방문한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은 4월 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포츠가 가진 의미나 역할을 대단히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체육’ 항목을 보면 스포츠맨십의 필요성을 비롯해 협동 정신에 관한 고유한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과 가정 및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게임의 발굴 필요성, 그리고 비군사적 경기 단체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체육은 민주주의 교육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sup>8)</sup> 다시 말해 “규칙에 따르는 스포츠맨은 민주주의적인 생활의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체육 교육이 장려되었다.<sup>9)</sup> 한편 GHQ 산하의 CIE(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민간정보교육국)는 일본의 체육 및 스포츠의 문제점으로서 경기에 대한 지나친 편중, 국민적 보급의 미비, 중앙집권적 관료 통제 등을 꼽으며 이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는데,<sup>10)</sup> 이는 뒤에서 서술할 문부성의 ‘Athletics for all’<sup>11)</sup> 즉 모두를 위한 운동 경기라는 방침을 체육 교육의 기초로 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교육사절단 및 CIE가 제시한 이른바 스포츠 방법론은 이미 미국

6)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GHQ에 의해 대일본체육회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일종의 관제조직이었던 대일본체육회는 패전을 기점으로 민간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GHQ가 대일본체육회 조직을 이용해 스포츠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다.

7) 문부성 체육국 진흥과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였다. 사회체육운동 보급, 체육대회 및 경기대회와 그 외의 체육 행사, 체육단체, 국제적 체육운동, 체육시설 자재 등이었다. (앞의 책, 内海(1993), p.29.)

8) 宮原誠一·丸木政臣·伊ヶ崎暁生·藤岡貞彦(1974) 「第1次アメリカ教育使節団報告書」 『資料日本現代教育史1』、三省堂、p.56.

9) 앞의 책, 宮原誠一·丸木政臣·伊ヶ崎暁生·藤岡貞彦(1974), p.46.

10) 草深直臣(1986) 「体育・スポーツの戦後改革」 伊藤高弘·上野卓郎·出原泰明編 『スポーツの自由と現代 下巻』、青木書店、pp.472-473.

11) “모두를 위한 경기 운동”.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의 대학 경기에서 지나치게 선수만을 위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학업에 대한 피해가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 일부 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을 위한 경기의 필요성이 제창되어 그 표어로서 ‘Athletics for all’을 내걸게 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51889&cid=42876&categoryId=42876> 검색일: 2020.03.28.)

에서는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던 바이기도 했다. 일찍부터 미국에서는 스포츠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내면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서 스포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였을 때 더욱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규율과 감시 체제가 뿌리를 잘 내리면 민주주의의 이상과 자본주의의 번영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고, 이러한 신념은 미국형 경기를 낳은 바탕이 되었다. 미국형 경기는 적정한 경쟁, 공정한 과정, 성과의 최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에 필요한 세 요소를 구현시키는 모델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교정(校庭) 축구가 체현한 것처럼 근대 스포츠는 이미 교육 현장과 접점을 맺고 있었다. 그런 배경에는 스포츠를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규제와 개혁의 시대정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2)</sup>

그렇다면 패전 일본은 미국교육사절단의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했을까. 문부성은 1946년 4월에 발표된 미국교육사절단 보고서 내용에 마치 응답하듯이 5월에 '신교육지침(新教育指針)'을 발표했는데<sup>13)</sup>, 그 중 '체육 개선' 항목을 살펴보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교재 개발, 교련 훈련 폐지, 놀이와 과외 운동 중시, 체육의 생활화, 모든 학생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보급, 교내시합이나 학교 대항 시합 장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신교육지침은 'Athletics for all'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학교 스포츠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1946년 6월에는 '학교 교우회 운동부 조직 운영에 관한 건(学校校友会運動部の組織運営に関する件)'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고 운동의 '민주화'를 제안했다. 이 문건에는 전전에 군사 목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졌던 학교 운동부의 관행을 폐지하고 교우 운동부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이를 민주주의적 체육 진흥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12) 鈴木透(2018) 『スポーツ国家アメリカ-民主主義と巨大ビジネスのはざままで』、中公新書、p.22-23.

13) 실제로 GHQ는 미국교육사절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이념과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승인하였고 CIE는 보고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문부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571.htm](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571.htm) 검색일: 2020.03.28.)

한편 1946년 4월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인 1945년 9월에 공개된 '신일본건설의 교육지침'에는 '명랑하고 활달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운동 경기를 크게 장려'할 것이 제안되고 있었다. 즉 '체조에서 스포츠로'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듯이 개인의 신체를 일률적으로 훈련시키던 전체적인 성격의 체조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스포츠로의 이행을 패전 일본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中沢篤史(2011) 「学校運動部活動の戦後史(上)実態と政策の変遷」 『一橋社会科学』 3号、一橋大学、p.40.)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14)</sup>

문부성은 이어서 1948년 3월에 ‘학생들의 대외 경기에 대하여(学徒の對外試合について)’라는 문건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앞서 발표된 ‘학교 교우회 운동부 조직 운영에 관한 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한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예컨대 ‘소학교는 교내 경기로만 진행하며, 중학교는 숙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 교내 경기에 중점을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지방 대회에 중점을 두고 전국 대회는 년 1회로 제한한다’ 등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선수층을 고정시키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건강, 연령, 조행(操行), 학업, 기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여자의 대외시합은 여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당한 운영을 도모한다’<sup>15)</sup> 등을 명시한 부분인데, 이는 특정 선수를 중심으로 승패에 집착하며 영웅 서사를 구축해 온 기존의 체육 관행과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 의지와 신체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박탈해 온 것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생물학적 차이를 염두에 둔 지침 역시 여성의 인권 신장과는 연동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문부성은 ‘학교 체육이 민주적 목적에 부합’하는 소위 ‘민주체육’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고, 이는 GHQ가 민주주의를 스포츠라는 신체 활동을 통해 이식하려던 점령 방침을 제도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부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스포츠를 매개한 민주주의 정신 계몽은 비단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패전 일본은 노동자의 스포츠 활동에도 크게 비중을 두었는데, 노동성(労働省)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1946년 4월 7일에 발표된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 보고서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스포츠가 민주주의 트레이닝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활용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피폐해진 마음을 스포츠로 위로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문부성은 1946년 4월 19일에 대중 연식야구<sup>17)</sup> 활성화를 위해 장

14) 関春南(1997) 『戦後日本のスポーツ政策-その構造と展開』、大修館書店、p.90. ; 梅垣明美(1997) 「運動部の活動」 中村敏雄編 『戦後体育実践論 第1巻 民主体育の探究』、創文企画、p.347.

15) 앞의 책, 関(1997), pp.91-92.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 현장에는 전전의 정신주의, 근성주의적인 운영방식이 이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전에서 전후로의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城丸章夫(1993) 『城丸章夫著作集 第7巻 体育・スポーツ論』、青木書店、pp.302-305.)

17) 일반 사회인들이 고무공으로 하는 야구를 연식야구라고 부르며, 1929년 일본에 연식야

비 1만 다스를 전국에 보급하기도 했는데, 패전 후의 물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스포츠 활동이 일부 유산자 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해 스포츠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sup>18)</sup>

이상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GHQ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체육 교육을 통해 신체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대일본체육회의 해산을 명령하는 한편 문부성을 통해 체육 교육을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매개로 삼고자 했다. 이는 전전의 일본이 몸을 통해 군국주의를 고취시키고 내면화시킨 것과 같은 방법론으로서 패전 후의 일본인들의 신체는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그릇으로 다시 도구화되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일본인의 신체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훈련시키고 복종시킨다는 점에서 전전의 군국주의 교육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신체를 매개로 한 패전 일본의 민주주의 교육은 그 자체로서 텅 빈 기표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부활하는 두 국체(国体)

전시 하에서 일본인들의 신체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던 권력 장치 가운데 하나였던 대일본체육회는 GHQ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그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일본체육회는 1946년 1월에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어졌던 조직을 해체하고 종목별 경기단체를 재구성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하기에

---

구협회가 창설되고, 제1회 전일본 연식야구대회가 개최된 이후부터 이와 같은 명칭이 굳어졌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고무공이 배급제가 되면서 칩체 국면을 맞이했으나 패전 후인 1946년에 도쿄연식야구연맹이 결성되고, 같은 해 8월에 일본연식야구연맹이 탄생함에 따라 대학과 일반 직장 내에 야구팀이 다수 창설되면서 다시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18) 앞의 책, 内海(1993), p.30.  
 이러한 조치 역시 GHQ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의 보고서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당시 미국교육사절단은 소수의 특권 계급과 대중이 각각 다른 종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일본의 교육 방식을 비판하고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학교제도와 민주적인 교육 과정 등을 제안하였다. (앞의 책, 関(1997), p.87)

이르렀으며, 1948년에는 11월에는 단체 이름을 일본체육협회로 개칭하고 문부성의 인가를 받는다.<sup>19)</sup>

연혁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보자면 정부의 외곽단체로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대일본체육회는 패전을 계기로 ‘순수한 민간단체’로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이나 후속 사업을 도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속성이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선 대일본체육회는 패전 후 일찍부터 전전에 가지고 있던 조직의 성격을 말끔히 표백시키고자 했다. 1945년 9월 27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보면 대일본체육회 소속 간부와 후생성 및 문부성의 체육 담당자들이 협의한 끝에 대일본체육회를 정부 외곽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로 재조직할 것을 결정한다. 이를 계기로 대일본체육회 이사들은 1945년 10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모임을 열어 이후의 조직의 성격이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물론 이는 GHQ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일본체육회는 ‘전시 하의 통제나 지도 방침은 철폐할 필요가 있다’<sup>20)</sup>며 일단은 군국주의 색채를 지우는 일에 주력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컨대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徳会)와 같이 GHQ에 의해 해체되고 임원들 대부분이 공직추방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사한 성격의 익찬단체였던 대일본체육회의 경우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임원들도 공직추방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이는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대일본체육회의 유용성을 GHQ가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재정면에 있어서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었다. 전시 하의 대일본체육회는 재정의 약 90%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패전 후인 1946년에는 전체 재정 가운데 약 25%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순수한 민간단체로 재편하겠다는 당초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결국 조직의 성격이나 사업 목적 등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sup>22)</sup>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일본체육회는 일본 정부와 GHQ 모두로부터 자유롭지 못

19) 앞의 책, 関(1997), p.94. ; 앞의 책, 内海(1993), p.34.

20) 앞의 책, 日本体育協會(1963), p.492.

21) 村井友樹(2016) 『大日本体育会の成立と変容に関する研究』 筑波大学博士論文、pp.134-136.

22) 앞의 논문, 村井(2016), p.139.



한 이중적 구속 체제 하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일본체육회, 즉 패전 후에 재탄생한 일본체육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국민체육대회(国民体育大会) 개최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국체(国体)’로 불리는 이 전국적인 체육 행사가 기획된 것은 1946년 2월에 열린 이사회 자리에서였다.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인 히사토미 다쓰오(久富達夫)가 “앞으로 협회는 단순히 스포츠 단체의 집합체라든지 올림픽을 위한 일개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패전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허탈감을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국민 스포츠를 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전국 규모의 국민체육대회를 고안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사회에서는 전전의 메이지신궁경기대회(明治神宮競技大会)<sup>23)</sup>와 비슷한 스포츠 대회를 조직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sup>24)</sup> 이어서 같은 해 5월 이사회에서는 대회 이름을 ‘국민체육대회’라고 정식으로 결정하였고 6월 이사회에서는 ‘제1회 국민체육대회 실시계획안’을 작성해 본격적으로 개최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다.<sup>25)</sup> 이후 일본체육협회의 이사장 기요세 사부로(清瀬三郎)는 7월에 GHQ의 민간정보교육국(CIE)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담당자였던 존 노빌(John Norviel) 소령은 경기장이나 숙소, 식량, 재정과 같은 여러 준비가 가능하다면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sup>26)</sup> 일본체육협회는 같은 해 8월 GHQ의 승인과 문부성의 후원을 얻어 8월 9일 효고현(兵庫県) 다카라즈카시(宝塚市)에서 패전 후 처음으로 하계 국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제1회 국민체육대회는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게이한신(京阪神)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해까지 진행되었다.

사실 전쟁이라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기분 전환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23) 1924년부터 1943년까지 14회에 걸쳐 이루어진 종합 경기대회로서 메이지 천황의 성덕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전후의 국민체육대회가 메이지신궁경기대회를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은 전전과 전후를 막론하고 일본인의 신체가 국가 이데올로기 구현을 위해 연속적으로 호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메이지신궁경기대회와 군국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옥희(2012) 『일본근대문학과 스포츠』, 소명출판, pp. 25-26. 참조.

24) 앞의 책, 内海(1993), p.35. ; 앞의 논문, 村井(2016), p.144.

25) 「国民体育大会生まる」 『中国新聞』 1946.05.31. ; 大日本体育会 「会報」 1946.04.01.,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村井友樹(2015) 「国民体育大会の創設過程に関する研究-大日本体育会の戦後再建に着目して-」 『スポーツ史研究』 第28号、スポーツ史学会、p.28.에서 재인용.)

26) J.W.Norviel “National Athletic Meets” 8 July 1946 GHQ/SCAP Recirds, CIE(A)000659, J.W.Norviel “National Athletic Meets” 26 July 1946 GHQ/SCAP Recirds, CIE(A)00664, (앞의 논문, 村井(2016), p.152.에서 재인용.)

스포츠 대회를 GHQ가 허락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무엇보다 국민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식하고자 했던 GHQ의 점령 방침을 가장 잘 구현하는 방법론이기도 했다. 이는 당시의 국민체육대회의 취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하루 빨리 민주 국가를 만들고 일본 국가를 재건하는 것은 전후 우리나라의 책무이다. 우리나라 체육의 책임 단체인 본회는 체육을 통해 이러한 중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가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사상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또한 건전한 오락으로서 청소년의 사상을 선도하는 데에 스포츠가 가지는 의의도 매우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회는 금년도에 특히 스포츠 장려에 유의함과 동시에 그 일환으로서 금년 가을을 중심으로 전국적 국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종전 후 1년이 지나려는 시점인 오늘날 세상이 아직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본 행사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촉진과 국민의 건전한 위락 진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sup>27)</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본체육협회는 스포츠의 중책이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사상의 민주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으며, 국민체육대회가 ‘민주화의 촉진과 국민의 건전한 위락 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지는 1946년 11월 1일 오사카후(大阪府) 및 교토후(京都府)에서 열린 추계 대회에서 당시 일본체육협회 회장이던 히라누마 료조(平沼亮三)의 인사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차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번 대회의 취지는 종전 이후 전국에서 불고 있는 스포츠 부흥 기운을 더욱 조장하는 데 있으며, 국내 체제 민주화 노선에 따라 스포츠가 본래의 민주적 성격을 발휘하여 국민 각층에 침투하도록, 또한 명량한 국민 생활 수립을 통해 국력을 재건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sup>28)</sup>

27) 앞의 책, 日本体育協會(1963), p.100.

28) 大日本体育会(1948)『第一回国民体育大会報告書』、大日本体育会、p.9.

일본인들의 몸과 마음을 천황과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훈육하던 기관인 대일본체육회가 패전을 기점으로 ‘순수한 민간단체’인 일본체육협회로 탈바꿈하여 이번에는 국민 문화와 사상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변모해 가는 사정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의 빈약함 내지는 나약함을 상징하는 대목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일본체육협회의 전신인 대일본체육회는 전시 하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패전 후에도 문부성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존립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국대회를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9)</sup>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또 다른 ‘익찬 단체’를 자처하는 길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일본체육협회는 처음부터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기 불가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성격’을 ‘국민 각층에 침투’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은 일본체육협회는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기조로 패전 일본을 지배하고자 했던 GHQ의 점령 방침을 구체화시킨 것이기도 했기에 일본 정부와 GHQ 모두의 이중적 관제 조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라는 이념 선전을 위해 기획된 국민체육대회, 이른바 국체의 기획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황을 비롯해 히노마루, 기미가요 등과 같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상징물이자 군국주의를 선동하고 고취시키는 상징물이 재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시 말해 국체의 절대성과 신성성을 상징하던 천황이 국민체육대회 개막식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일본인의 신체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 속에 여전히 예측되어 있음을 재차 현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국체가 결국은 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 기획이 성사되었던 것은 1947년 10월 30일 이시카와현(石川県)에서 열린 제2회 국민체육대회에서였다. 1946년 1월 1일에 소위 ‘인간선언’을 한 쇼와 천황은 같은 해 2월 19일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을 시작으로 전국 순행을 시작하는데, 1947년 10월 하순경에는 호쿠리쿠(北陸) 순행이 예정되어 있던 차에 때마침 이시카와에서 열리던 국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천황폐하는 예전부터 대진 후 국정 관찰을 위해 전국을 순행하시고 계셨는

29) 앞의 책, 内海(1993), pp.37-38.

데, 때마침 10월 하순에 호쿠리쿠 지방을 순행할 예정이었다. 기요세(清瀬) 이 사장이 국민체육대회 참가를 궁내부 다시마(田島)장관을 통해 요청하자, 9월 17일 비공식적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신 후 소속 경기단체 및 도도부현 지부장과 만나시고 일부 경기를 관람하신다는 내용의 내시(內示)가 있었다. 개회식은 10월 30일 오전 9시 20분 가나자와(金沢)시영 운동장에서 폐하를 맞이해 이루어졌다. 전날의 호우는 기적적으로 활짝 개였고, 임원들이나 선수들의 복장은 제각기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어 기분 좋게 입장해 식순에 따라 식이 진행되었다. 개회 선언 후 대회 처음으로 젊은 힘(若い力)이 연주되는 동안 대회 깃발이 최초로 게양되었고, 이어서 금기시되던 국기도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 없이 게양되었다. 국기 게양과 동시에 2만 관중은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등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회장은 환희의 도가니가 되었다.<sup>30)</sup>

일본체육협회가 감수한 『국민체육대회의 발자취(国民体育大会の歩み)』(1977)라는 제목의 책 속에는 제2회 국민체육대회 개막식 분위기가 위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사후적으로 기술한 위의 인용문 가운데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국민체육대회에 천황이 등장한 것을 ‘때마침(たまたま)’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을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전달하는 뉘앙스이다.<sup>31)</sup> 사실 일본의 체육계는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축구를 비롯해 야구, 육상, 수영 등 여러 종목의 스포츠 단체가 앞 다투어 천황배(天皇杯) 하사를 신청하거나 황족들을 협회 총재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스포츠 단체들은 천황의 권위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며 개인의 신체 단련의 지향점이 여전히 천황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재기를 꾀하려고 했던 셈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체육협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체육대회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7월 9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문부성이 궁내청에 의증을 물어 본 뒤에 정식으로 참석을 신청하자’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 천황배 하사 신청 역시 검토의 대상이기도 했다.<sup>32)</sup>

이렇게 국민체육대회에서의 천황의 등장은 사전에 기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체육협회가 그 사실을 우연성에 기반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30) 日本体育協会監修(1977) 『国民体育大会の歩み』、都道府県体育協会連絡協議会、p.123. (권학준(2003) 『戰後初期国民体育大会와 스포츠개혁정책』 『일본어문학』 20, 일본어문학회, p.367.에서 재인용.)

31) 우연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때마침’이라는 표현은 일본체육협회가 펴 낸 『日本体育協会五十年史』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다.(앞의 책, 日本体育協会(1963), p.101.)

32) 앞의 책, 内海(1963), pp.46-47.

무엇일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대일본체육회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 일본체육협회는 패전 후에 ‘순수한’ 민간단체임을 자처하며 스포츠의 민주화와 대중화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전전의 인사 및 조직을 모태로 삼고 있다는 점이나 재정적으로 문부성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증명하는 대목이며 이는 전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익찬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전쟁과 결별하고 정부 혹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민간단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때마침’이라는 수사를 사용해 일본체육협회가 주관하는 국민체육대회와 천황의 접점을 우연으로 가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체육협회가 국민체육대회에 천황을 호출해 다시 한 번 국체의 재건을 도모하려했던 것은 이후의 전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1948년 제3회 후쿠오카(福岡)대회부터는 국민체육의 보급 장려를 목적으로 천황배와 황후배가 만들어졌고, 1949년 제4회 도쿄(東京)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천황과 황후가 함께 개회식에 출석하여 천황이 인사말(お言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1950년 제5회 아이치(愛知)대회부터는 천황의 참석이 정식 결정되었고 1955년에는 ‘국민체육대회 개최 기준 요강’이 제정되어 천황의 참석이 규정으로 마련되었다.<sup>33)</sup>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두 국체의 긴밀성은 더욱 보장되어갔고 제도화되어 정례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전전부터 스포츠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로 여겨온 것을 반성하지 않은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34)</sup>

천황의 등장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안은 1947년 10월에 열린 제1회 국민체육대회에서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패전 후에 금지시되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이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 없이 이루어졌고 그 순간에 온 관중은 환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고 당시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GHQ는 패전 후 일본에서 히노마루 게양은 물론이고 기미가요 제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1947년 5월부터는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허가하고 있었다.<sup>35)</sup> 그러나 실제

33) 권학준(2009) 「国家權力装置としての国民体育大会に関する一考察」 『일본문화연구』 32, 동아시아일본학회, p.27-28.

34) 앞의 책, 内海(1993), p.47. 전후 일본이 국민체육대회를 통해 상징천황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상세 내용은 권학준의 앞의 논문 참조.

35) 大西齋(2009) 「わが国の国旗・国歌の歴史的意義とその法的位置づけ」 『国際公共政策研究』 14(1), 大阪大学, p.81.

는 허용 범위가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1946년 11월 3일 일본국 헌법 공포 기념식전에 쇼와 천황과 황후가 자리를 한 가운데 기미가요가 제창되는 일도 있었다. 국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 제1회 대회가 열리기 2개월 전인 1947년 8월 29일 한신니시노미야 고시엔(阪神西宮甲子園)에서 열린 맥아더원수배 경기대회<sup>36)</sup>에서 기미가요가 제창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체육대회에서 히노마루 계양이나 기미가요 제창을 CIE가 허락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히노마루나 기미가요에 대한 부정을 곧 민주화라든지 평화교육이라고 여기고 있을 시절이었고 때문에 언론계나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였다.<sup>37)</sup> 뿐만 아니라 헌법문제를 비롯하여 천황의 지위마저도 확실시되지 않았으며 1948년 전범 처리를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sup>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공식 행사에 천황이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도 함께 등장한 사실은 GHQ가 전전의 천황제를 비롯한 구 체제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배 방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천황제적 정치 체제와 점령기의 미국 지배 체제가 구조적으로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 점령의 기본 방침 중 하나인 민주화가 과연 패전 일본에서 실현되었는가를 묻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이상으로 패전 일본에 이식된 ‘민주’의 모순된 양면성을 스포츠 담론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스포츠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신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규율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비정치적인 장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이익이나 이데올로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대단히 고도화된 정치적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패전 일본의 스포츠 담론과 실천에서 간

36) 오사카의 실업가 이케다 마사조(池田政三)의 착안으로 시작된 대회로 전후일본의 스포츠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책, 内海(1993: 53-55), 참조.

37) 所功(2000) 『国旗・国歌と日本の教育』、モラルジー研究所、p.39.

38) 손안나(2010) 『쇼와천황(昭和天皇)의 전후순행과 상징천황제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34-35.

과할 수 없는 부분은 GHQ가 패전 일본에 이식한 ‘민주’의 모순된 양면성이었다. 체육 교육을 통해서 내면화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란 결국 과거의 군국주의를 신체에 기입시키던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또한 전전의 정부 직관기관으로 활동하던 대일본체육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후 처리도 없이 민간단체라는 외피를 씌워 그것을 천황제를 공고히 하는 매개로 삼아 점령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같이 스포츠 내지 신체를 매개로 한 민주주의와 군국주의의 결합은 미국의 역사학자 존 다우어(John W. Dower)가 지적한 ‘스캐파니즈 모델’(a SCAPanese Model, 연합국총사령부 SCAP와 일본인의 합작 모델이라는 뜻) 혹은 일미포합체제(a Hybrid Japanese-American Model)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미국에서 출판된 『패배를 껴안고-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인 상·하』에서 그는 미 점령군은 패전 일본에게 전면적인 사회개조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황제를 비롯한 구 체제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지배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패전 이전의 일본의 천황제 정치 체제와 점령기의 미국 지배 체제는 구조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sup>39)</sup> 특히 전범 히로히토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고 ‘상징 천황제’라는 방식으로 천황제를 온존시키며 ‘천황제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모순된 이념을 병치시킨 것은 미국이 패전 일본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민주’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대목에 다름 아니다. GHQ가 패전 일본에서 공격 실천담론으로 제시한 민주화란 전전 일본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접맥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오늘날의 현대일본사회의 민주주의 아이러니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자 단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권학준(2003) 「戰後初期国民体育大会와 스포츠개혁정책」 『일본어문학』 20, 일본어문학회, p.367.  
 권학준(2009) 「国家權力装置としての国民体育大会に関する一考察」 『일본문화연구』 32, 동아시아일본학회, pp.27-28.

39) 이 책은 미국에서 “Embracing Defeat-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W. W. Norton & Company, 1999)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뒤, 일본에서 『敗北を抱きしめて 上・下-第二次大戦後の日本人』(三浦陽一・高杉忠明訳、岩波書店、2001)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패배를 껴안고-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최은석 역, 2009, 민음사)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 손안나(2010) 『쇼와천황(昭和天皇)의 전후순행과 상징천황제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34-35.
- 조정민(2009) 『만들어진 점령서사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산지니, p.17.
- 内海和雄(1993) 『戦後スポーツ体制の確立』、不昧堂出版、pp.22-47.
- 梅垣明美(1997) 『運動部の活動』 中村敏雄編 『戦後体育実践論 第1巻 民主体育の探究』、創文企画、p.347.
- 大西齋(2009) 『わが国の国旗・国歌の歴史的意義とその法的位置づけ』 『国際公共政策研究』 14(1)、大阪大学、p.81.
- 草深直臣(1986) 『体育・スポーツの戦後改革』 伊藤高弘・上野卓郎・出原泰明編 『スポーツの自由と現代 下巻』、青木書店、1986、p.472-473.
- 城丸章夫(1993) 『城丸章夫著作集 第7巻 体育・スポーツ論』、青木書店、pp.302-305.
- 鈴木透(2018) 『スポーツ国家アメリカ-民主主義と巨大ビジネスのはざままで』、中公新書、pp.22-23.
- 関春南(1997) 『戦後日本のスポーツ政策-その構造と展開』、大修館書店、pp.87-94.
- 大日本体育会(1948) 『第一回国民体育大会報告書』、大日本体育会、p.9.
- 所功(2000) 『国旗・国歌と日本の教育』、モラルジー研究所、p.39.
- 中沢篤史(2011) 『学校運動部活動の戦後史(上)実態と政策の変遷』 『一橋社会科学』 3号、一橋大学、p.40.
- 日本体育協会(1963) 『日本体育協会五十年史』、日本体育協会、pp.62-492.
- 松本三之介(1974) 『近代日本の知的状況』、中央公論社、p.195.
- 宮原誠一・丸木政臣・伊ヶ崎暁生・藤岡貞彦(1974) 『第1次アメリカ教育使節団報告書』 『資料日本現代教育史1』、三省堂、p.56.
- 村井友樹(2015) 『国民体育大会の創設過程に関する研究-大日本体育会の戦後再建に着目して-』 『スポーツ史研究』 第28号、スポーツ史研究学会、p.28.
- 村井友樹(2016) 『大日本体育会の成立と変容に関する研究』 筑波大学博士論文、pp.134-144.
- 文部科学省 戦後の教育改革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571.htm](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571.htm) 검색일: 2020.03.28.)
- Athletics for al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51889&cid=42876&categoryId=42876> 검색일: 2020.03.28.)

논문 투고 일자 : 2020. 03.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要旨＞

政治の身体化・身体の政治化  
-アメリカ占領期日本のスポーツ言説と民主化-

趙正民

本稿はGHQが戦後日本に移植しようとした「民主」の概念をスポーツ言説を通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GHQは体育教育や制度を通じて「民主」を内面化させようとしたが、その過程は戦時下の日本が軍国主義を身体化した方法と同様であった。例をあげるならば、GHQは戦争期における翼賛団体の一つであった大日本体育会を日本体育協会に改組し、天皇制をさらに強化するとともに、同協会を占領統治のため利用しようと試みた。すなわち、GHQは日本の政治体制に対する根本的な改造なしに、天皇制をはじめとする旧体制を引き継ぐかたちで日本を支配したのである。このことからうかがえるように、戦時下の日本の政治体制とアメリカの占領体制とは構造的に連続しており、結局のところ、「天皇制民主主義」という矛盾した概念を誕生させるに至ったのである。こうした点は今日の現代日本社会の「民主」の脆弱性を構造的に把握するうえで多くの示唆を与えてくれる。

Somatization of Politics and Politicization of Body  
-Japanese Sports Discourse and Democratization under American Occupation-

Cho, Jung-M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democracy' which GHQ intended to propagate to Japan after its defeat in war through the sports discourse. Although GHQ tried to internalize democracy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and institution, which is, however, exactly the same as the Japanese strategy to implant the idea of militarism during war. In addition, the Japanese Athletic Association which supported the government during war was disguised as a private organization and used as a media for consolidating the position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emperor and facilitating the American occupation.

As such, GHQ dominated Japan by pacifying the old regime including the Japanese emperor, rather than revamping the Japanese society. In other words, there was structural continuity between the Japanese emperor-centered political regime and the American occupation regime, consequently leading to a contradictory ideology, the 'Japanese emperor democracy'. This is a clue allowing us to structurally understand where such irony of 'democracy' in the modern Japanese society originates from.